

# ‘2247일 만 승리’ 광주FC, 전북현대 또 잡을까

오늘 전주서 FA컵 8강 맞대결 양 팀 모두 로테이션 가동 전망 허을·이건희 등 깜짝 활약 기대



나선다.

광주FC는 28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2023 하나원큐 FA컵 8강전을 치른다.

광주는 파죽지세다. 지난달 20일 인천 원정에서 시작된 무패행진을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전북현대와 맞대결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탄탄한 조직력

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해나갔고, 날카로운 공격까지 선보이며 2-0 완승을 거뒀다.

부주장 이순민은 전반 19분 크로스를 준비하는 두현석을 보고 절묘하게 수비 틈을 파고든 뒤 센스 있는 백헤더로 팀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트렸다. 혼란을 통해 약속된 플레이였고, 철저히 경기를 준비한 팀워크가 빛났다.

이건희도 올 시즌 마수걸이 골로 존재감을 알렸다. 후반 추가시간에 들어서자마자 페널티박스 내에서 수비 두 명의 견제를 이겨낸 뒤 침착한 마무리 능력으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경기 내내 광주의 뜨거운 공격력이 빛났던 경기였다. 이순민과 이진희뿐만 아니라 토마스와 엄지성, 이희준 등도 저돌적인 돌파와 허를 찌르는 패스로 활기를 불어넣었고, U-24 대표팀에 소집됐던 정

호연도 수준 높은 플레이를 선보였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2017년 4월 30일 이후 2247일 만에 전북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겼고, 무패행진을 FA컵 포함 7경기까지 늘리며 6월의 마지막 주말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최고의 분위기를 자랑하는 광주의 이번 상대는 또 다시 전북이다. 광주는 4일 만에 FA컵 8강전으로 다시 전북과 재회하는 만큼 지난 경기 승리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창단 후 첫 FA컵 준결승 진출을 위해 달린다.

광주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전망이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24일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FA컵 8강전은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했거나 준비를 잘해온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면서도 “그동안 준비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FA컵도 당연히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 감독은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이랜드FC와 16강전, 4월12일 열린 부산아이파크와 32강전에서도 로테이션을 대거 가동했다. 당시 아론과 박한빈, 신창무, 주영재 등 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존재감을 알렸다.

특히 허을과 이진희 두 공격 자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 허을은 올해 FA컵에서 맹활약 중이다. 32강전에서 광주의 두 골에 모두 도움을 주며 2-1 승리에 앞장섰고, 16강에서는 직접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트리며 1-0 승리의 주역이 됐다. 또 직전 전북전에서 결승골로 리그 첫 골을 신고한 이진희 역시 지난 32강전에서 후반 막판 극적인 결승골을 터트렸다.

전북역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 단 페트레스쿠 감독도 지난 24일 경

기 후 “주중 재대결에서는 많은 것을 개선해야 한다”며 “선수 명단 변화를 가져갈 것이고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전북은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위협적인 팀이다. 지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더라도 이수빈과 김건웅, 오재혁 등 탄탄한 허리 자원으로 센터백 윤영선과 윙퍼 정민기 등이 안정적인 선수들이다. 조규성과 이동준, 송민규, 하파실바도 45분씩만 뛰며 체력을 안배했다.

그럼에도 광주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공격을 막아낸 뒤 빠르고 정교한 역습으로 전북의 허점을 공략할 전망이다. 이정호 감독의 전략이 다시 한번 페트레스쿠 감독을 무력화시키고 창단 첫 4강 진출의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광주체고 양궁 조수혜, 화랑기 4관왕

60m·50m·개인전·혼성전 1위 남지현 70m 1위·개인전 2위 광주체중 금 2·은 1개 획득

광주체육고 조수혜(3년)가 화랑기 제 44회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조수혜는 지난 19-24일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고부 리커브에서 금메달 4개(60m·50m·개인전·혼성단체전)와 은메달 1개(30m)를 목에 걸었다.

조수혜는 60m에서 6라운드 합계 345점을 쏘 김수아(오수고·344점)를 제치고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50m에서도 340점을 기록, 두 번째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30m에서 357점으로 신서빈(대전체고·358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조수혜는 토너먼트로 진행된 개인전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싱글라운드 1위로 개인전 본선에 진출한 조수혜는 64강서 이지윤(인천 인일여고)을 6-0, 32강서 이재현(전북체고)을 6-0, 16강서 유주희(전북체고)를 6-0, 8강서 신고은(대구체고)을 6-2로, 4강서 유슬하(전북체고)를 6-0으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라 팀 후배인 남지현(광주체고 1년)을 만나 6-2(28-25 23-26 30-28 30-27) 승리를 거뒀다.

조수혜는 최우진(광주체고 2년)과 호흡을 맞춘 혼성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추가, 4관왕을 달성했다. 조수혜-최우진 조는 16강서 울산 김가은-배민수 조를 5-1

로, 8강서 경북 이연우-황정인 조를 6-2로, 4강서 인천 윤예린-박재형 조를 5-3으로 각각 꺾고 결승에 올라 대전 김보경-박은성 조를 상대로 6-0 완승을 거뒀다.

여고부 개인전 결승에서 조수혜에게 져 은메달을 그친 광주체고 남지현은 70m에서 337점을 쏘 원성운(경기체고), 신고은(대구체고)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고는 조수혜, 남지현의 선전에 힘입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이선미 광주체고 양궁 코치는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며 “7월 10-15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대통령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체육중 박주혁(3년)은 남중부 50m에서 340점을 쏘 권오을(원봉중·337점), 이지혁(대전내동중·337점)을 따돌리고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광주체육중 심유한(3년)은 남중부 40m에서 350점을 기록, 이재현(선인중·347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중 박주혁·심유한·김휘찬·김종연은 남중부 단체전에선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중은 단체전 결승서 충북선발팀과 숏오프 접전 끝에 4-5(53-56 59-55 56-58 58-56 <27-28>)로 석패했다.

이로써 광주체중은 금 2개와 은 1개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동환 기자



광양여고 축구선수들이 지난 26일 경남 합천에서 끝난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여고부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광양여고,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2연패

3학년 박인영 최우수선수상 광영중은 여중부 준우승

광양여고 축구팀이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여고는 지난 26일 경남 합천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포항여전고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준결승서 경남 로봇고를 4-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광양여고는 결승서 전반 37분 포항여전고 이선빈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하지만 후반 4분 상대 자책골로 동점을 만든 뒤 후반 38분 정다빈(3년)의 결승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후

상대 공세를 육탄방어로 잘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다.

이로써 광양여고는 지난 4월 춘계연맹 결승전 패배 설욕과 함께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광양여고를 우승으로 이끈 박인영(3년)은 최우수선수상을, 조혜영(2년)이 득점상을, 조어진(3년)이 골키퍼상을 각각 수상했다. 권영인 감독과 이슬기 코치는 각각 최우수감독상과 최우수지도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영인 광양여고 감독은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여왕기 우승을 차지해 매우 기쁘다”며 “선수들과 같이 준비잘해서 선수권과 제104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

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광영중은 여중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영중은 결승서 충북예성여중에 0-6으로 졌다.

광영중 김서운(3년)은 우수선수상을, 황다빈(3년)이 득점상을, 박서인(3년)이 수비상을 받았다. 박태원 감독과 조주빈 코치는 각각 우수감독상과 우수코치상을 수상했다.

박태원 광영중 감독은 “우승하지 못해 아쉽지만 선수들이 꾸준히 노력해 나날이 발전된 실력을 보여줘서 고맙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꼭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동환 기자



화랑기 제44회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금 5개와 은 2개를 수확한 광주체고 양궁팀. 왼쪽부터 김중명 코치, 김서희 감독, 최우진, 조수혜, 남지현, 이윤아 선수, 이선미 코치. 광주체육고 양궁팀 제공

## KIA 최형우, 1500타점 기념구 KBO 아카이브센터 기증

2026년 부산 개관 박물관 전시

KIA타이거즈 최형우의 1500타점 등을 시즌 탄생한 KBO리그 1호 기념구들이 야구 박물관에 전시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KIA 최형우의 1500타점 기념구와 SSG 최정희의 1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념구를 아카이브센터에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KIA 최형우는 지난 20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경

기 4회초 중앙 펜스를 넘기는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KBO리그 최초 1500타점 대기록을 수립했다.

최형우의 1500타점은 종전 리그 통산 최다 타점 1위 기록인 이승엽 두산베어스 감독의 1498타점을 넘어선 기록으로, KBO리그가 출범한 이래 그 누구도 도달한 적 없는 숫자다.

이로써 최형우는 이승엽 감독이 양준혁의 1389타점을 제친 2016년 8월 24일 이후 약 7년간 군림하던 통산 타점 1위 자리

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 앞으로 최형우가 만들어내는 모든 타점은 KBO리그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된다.

더불어 KBO리그 사상 첫 1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은 최정희가 18년간 몸담아 온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나왔다. 최정희는 지난 1일 삼성라이온즈와 경기에서 양창섭을 상대로 두 차례 담장을 넘기며 KBO리그 1호 18시즌 연속 10홈런을 기록했다. 한편 기증된 기념구들은 KBO 아카이브센터에 보관돼 오는 2026년 부산 기장에 개관하는 야구 박물관에 전시된다.

한규빈 기자